

# 미래 목록법 동향 연구

## A Study on the Future Cataloging Rules

남태우(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창하(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Nam Tae Woo, Kim Chang Ha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ung-Ang University

MARC를 바탕으로 시작된 OPAC은 오늘날 목록의 기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AACR2와 MARC같은 현행의 목록법에 변화의 필요성을 야기시킴과 동시에 미래의 목록법을 위한 새로운 패턴을 제시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목록법 학자들이 주장한 AACR3, MARC III, HYPER-MARC 등을 중심으로 미래 목록법의 개정동향을 고찰하였다.

### 1. 서론

미래의 목록법 동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OPAC의 기능발전을 논의할 수는 없다. MARC의 기계주의로 시작된 OPAC은 전자적 환경의 발달에 힘입어 전통적 목록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이제는 검색의 시공적 제약을 완전히 해소한 벽없는 도서관, Web OPAC, Supercatalogue을 현실화시키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발전한 OPAC은 목록의 기능을 극대화시킴으로써 AACR2, MARC포맷 등 현재의 목록법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OPAC은 목록만의 역할에서 벗어나 오히려 목록법의 변화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미래 목록법을 모색하게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목록법 학자들도 이런 변화의 불가피성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목록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OPAC의 특성들을 살펴보고, J. E. Rowley, M. Gorman, B. B. Tillett 등이 제시한 새로운 목록법 이론들을 중심으로 미래 목록법의 동향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 2. OPAC

#### 2. 1. OPAC의 발전단계

1970년을 전후해 출현한 OPAC은 그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폭은 대단히 커서 초기의 시스템과 현재의 시스템간에는 접근점, 접근방법, 탐색기법, 그리고 이용자와 시스템의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OPAC에 대해 C. R. Hildreth는 OPAC의 기능적 발전단계를 3개의 세대로 구분하였다.

제1세대는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반이다. 이 시대의 OPAC은 파일내용, 조직, 접근점 등에서 카드목록의 방식을 시도했다. 주로 known item을 탐색하는 도구였으며, 비표준적 간략 서지레코드에 저자, 서명 및 제어번호 등 소수의 접근점만을 제공하였고 주제탐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제1세대의 OPAC 시스템에서는 이용자보다는 도서관과 목록자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제2세대는 대체로 1980년대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시대의 OPAC은 전통적인 목록법의 전제적인 3두정치라 할 수 있는 서명, 저자, 주제

명의 제한된 검색접근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검색시스템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탐색 및 접근점의 확대, 주제 및 후조합탐색, 통제어휘 주제접근, 브라우징 기능, 키워드 접근 등은 OPAC을 카드목록에 비해 월등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킨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의 OPAC은 인터페이스 문제에 있어서 이용자의 편의성이 고려되지 못했다. 이는 시스템 설계자들이 기술(技術)상의 전문적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정보추구자의 요구와 이용행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정보의 본질과 정보흐름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2세대 OPAC이 태생적으로 이용자 친화적 시스템이 될 수 없었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OPAC의 제3세대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대의 OPAC은 제2세대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안고 시작되었다. 따라서 제3세대 OPAC에서는 완전한 전거에 의한 접근, 탐색문 작성으로의 자동안내 및 완벽한 도움기능, 본문 및 통제어휘 탐색접근법의 통합, 주제가 보강된 서지레코드 구축방법들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터페이스도 자연언어탐색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자동 오류수정기능과 대화형 모드가 가능한 이용자 지향적 목록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즉 제3세대 OPAC은 보다 지적이며, 즉응적이고, 다차원의 다기능적인 온라인 목록이 될 것이다.

## 2. 2. OPAC의 특성

OPAC은 목록의 한 유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뿌리를 전통적인 목록법에 두고 있지만, 온라인이라는 환경적 특성과 정보기술의 개발로 인해 목록법의 본질과 실제 적용에 일대 혁신을 가져다 준 '온라인 서지통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OPAC의 특성은 두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외형적인 특성으로서 OPAC 발전의 촉진요인과 이용자 선호요소를 들 수 있다. 森田一子는 촉진요인으로서 첫째, 컴퓨터 기술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급속한 발달, 둘째, 서지유틸리티의 출현, 셋째, 도서관 임무

의 확장을 들고 있다. Caren Markey는 OPAC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요소로서 탐색의 흥미, 시간절약,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탐색기법 등을 들고 있다.

OPAC의 기능적 특성으로서는 첫째, 검색접근점의 다양성, 둘째, 검색의 신속성, 셋째, 검색의 편의성, 넷째, 정보의 최신성, 다섯째, 다중 접근성, 여섯째, 정보의 공유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특성들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성능, 서지데이터의 표준화와 통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 3. 미래 목록법

### 3. 1. AACR3

J. E. Rowley와 B. B. Tillett는 AACR2의 대체물로서 AACR3를 주장하고 있다.

Rowley는 OPAC이 AACR2와 이미 상당한 관련이 있는 만큼 AACR3의 출발은 AACR2를 기본으로 하면서 OPAC에서 요구되는 추가적인 기능들을 규칙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현행 목록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칙들을 무시한 전면적인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기본입장이다.

Rowley는 그 이유로서 AACR2의 위상적 장점과 내용적 장점을 들고 있다. 그가 제시한 위상적 장점은 다음과 같다.

- 1)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수용된 목록법으로서 지금까지의 자료들이 그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 2) 표준화를 확립함에 있어 데이터베이스간의 일관성 뿐만아니라 목록작업의 전문표준용어를 제공해 온 점
- 3) 각종 매체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새로운 매체를 위한 조직적인 구성체계도 준비하고 있다는 점
- 4) 과거 90년 이상 축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편목의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장점들의 이면에는 AACR2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 문제점들은 AACR2가 카드목록과 COM목록 등에 기본적인 개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Rowley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미 OPAC의 기능과 상당부분 관련이 있다는 점을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Rowley는 AACR2의 표목 및 기술부와 OPAC의 기능을 비교·검토하여 AACR3에서 고려되어야 할 관련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AACR2의 기술요소들은 OPAC의 브라우징이나 검색에 사용된다.
- 2) 목록의 기술에 있어서 구성요소의 순서는 검색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브라우징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 3) AACR2의 표목과 통일서명, 그리고 참조기입은 정보검색을 위한 중요한 검색키로 작용한다.
- 4) 일반적으로 OPAC에 있어서 모든 검색키는 동일한 정보로 취급된다.
- 5) 표목의 형식에 있어서 실제 저자명과 표목으로 선정된 저자명의 형식이 매우 중요하다.
- 6) 단체명 형식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개인 저자명의 형식과 동일하다.
- 7) 좀더 발전된 OPAC은 컴퓨터가 좀더 다양한 형식들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시스템이나 하이퍼텍스트 기술, 그리고 전거리스트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비교결과를 토대로 Rowley는 AACR2의 표목과 기술사항들을 OPAC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지 OPAC으로 인해 검색과정의 본질이 상당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검색 접근점의 문제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변화로 인한 수정에 따르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수고를 염두에 둔 것이다.

Tillett는 AACR3를 구축하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서지기술을 위해 '표제지 불가침성'이 유지되는 것이고, 둘째는 접근점에 비해 링크는 이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레코드 디스플레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현행규칙은 배열을 위한 파일링장치가 불필요하게 정교하다는 점, 그리고 넷째는 기본단위저록(piece)을 기술하는 원칙을

재검토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러한 사항을 토대로 AACR2가 다음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된 AACR3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제1부 : 편목의 원칙과 개념에 관한 부문
- 제2부 : 기술을 위한 일반규칙 부문
- 제3부 : 접근에 관한 규칙 부문
- 제4부 : 디스플레이 구축에 관한 부문

각 부문의 내용을 보면, 제1부는 목록법의 기본원칙과 지침개념, 제2부는 서지기술을 위한 일반규칙, 제3부는 저작성의 원칙에 기반을 둔 일차적 접근점, 즉 서지레코드에 대한 기본적인 합리적인 접근을 지시해주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제4부는 ISBD에 규정된 구두법이 포함된다. 이는 기술데이터 요소와 그 순서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서지기술정보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Tillett는 이러한 기본규칙들이 개별도서관들의 관행화된 편목메뉴얼을 만드는데 기본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장의 실무관행을 존중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이론의 또 다른 특징은 그의 목록법이 자동화된 도서관과 그렇지 못한 도서관 양자 모두를 고려한 다목적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 3. 2. HYPERMARC

Michael Gorman은 만약 서지적 표준이나 목록규칙이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MARC가 아주 획기적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AACR2도 단순한 개정을 넘어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현재의 MARC 레코드는 다른 레코드들과 거의 연결성을 갖고 있지않다. Gorman이 주장하는 HYPERMARC에 의해 생성된 레코드들은 현재보다 더욱 간단한 데이터를 담게 될 것이며,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방법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개별적 레코드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담게 된다.

- 1) 규칙화된 기술데이터
- 2) 저자명 전거데이터

- 3) 통일된 서명 전거데이터
- 4) 주제접근 데이터

Gorman은 이러한 HYPERMARC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록규칙이 필요한데, 그 명칭을 AACR3보다는 HYPERMARC-Manual (HYPERMARC Record Preparation Manual)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Manual은 다음과 같은 구성체계를 갖는다.

Manual은 일단 AACR2와 같이 2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제1부는 첫째, 기술데이터에 대한 HYPERMARC 지시자 할당방법, 둘째, 고정장필드와 코드 등의 할당을 위한 규칙, 셋째, 더욱 철저한 기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에 관한 규칙들로 구성된다는 점들이 AACR2와 상이하다.

제2부는 서지적 기술사항과 다른 패키지들에 대한 연결, 고정장필드와 접근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저자명, 서명, 저자명/서명 패키지의 구축에 관한 일련의 규칙을 담게된다. 이를 위해 제2부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요컨대 처음 4개의 장은 다른 유형의 저자명과 서명접근 패키지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다룰 것이고 제5장은 그러한 패키지들과 기술레코드들이 링크되는 방법을 다루게 된다.

### 3. 3. MARC III

Tillett는 Gorman과 달리 MARC포맷을 더욱 정교한 시스템으로 수정·발전시킴으로써 그것의 지속적인 사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MARC가 현재 전자적 환경의 도서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Tillett는 MARC데이터를 검색과 디스플레이를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MARC포맷을 제시하고 있다.

- 1) 서지레코드를 위한 MARC III
- 2) 접근제어레코드를 위한 MARC III
- 3) 소장레코드를 위한 MARC III

여기에서 서지레코드를 위한 MARC III를 위

한 구성필드는 아래와 같다.

0XX : 연결정보	5XX : 형태사항
1XX : 서명과 책임정보	6XX : 시리즈사항
2XX : 판사항	7XX : 주기사항
3XX : 자료의 특정사항	8XX : 표준번호
4XX : 출판사항	9XX : 주제분석

그리고 접근제어를 위한 MARC III는 서지레코드에 markup된 텍스트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고, 소장레코드를 위한 MARC III는 자료의 소장위치, 권호와 복본정보, 바코드정보, 자료의 특정 주기사항 등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 4. 결 론

미래 목록법의 개정은 OPAC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전제 아래 크게 두가지의 방향을 띠고 있다. Rowley의 AACR3와 Tillett의 AACR3 및 MACR III는 부분적 개정이론으로써 현재의 관행을 중요시하는 보수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 반면, Gorman의 HYPERMARC는 현행 MARC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이론으로써 진보주의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그렇지만 미래의 목록법이 어떠한 형태를 이루든간에 그것은 기능성과 실용성,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강조되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개정작업은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과 실리의 경제성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Gorman, Michael. After AACR2R : The Future of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in *The Origins, Contents,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 R. P. Smiraglia, Chicago, ALA, 1992.
- Gorman, Michael. A New Golden Age? : The Future of Cataloging, *Cataloguing Australia* Vol.17, no.3(1991)
- Rowley, J. E. Towards AACR3 : A Review of the Implication of OPACs for the Cataloguing Codes and Practices, *Library Review*. Vol.38, no.3(1989).
- Tillett, Barbara B. Future Cataloging Rules and Catalog Records, in *The Origins, Contents, and Future of AACR2 Revised*. (ed.) R. P. Smiraglia, Chicago, ALA, 1992.